

○ 기구 :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 기간 : 2009년 4월 - 2010 3월 (인턴십)

2010 4월 - 2011년 9월 (계약직 직원)

○ 이름 : 홍은경

1999년 1월 3일 일요일 오후 10시. 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언니와 함께 종로도서관에서 마감종소리를 듣고 도서관을 나왔다. 마중 나오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가,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였고, 나는 우연히 TV를 틀었다. 그 때까지는 그 순간이 내 삶을 바꾸어 놓는 운명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 생각지도 못했었다. 그것은 김운용 전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의 성공이야기를 다룬 프로그램이었다. 한국인이 세계 속에서 손꼽히는 자리에 있다는 것과 올림픽게임을 주관하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놀라움 그 자체였다. 그 후로 두 달이 흐르고 꽃이 피는 춘삼월,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나는 하나의 과제를 받았다. 사회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진로를 정해야 하기에 각자의 꿈을 담은 글을 준비해서 매 수업 시간에 한 명씩 발표시키시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문득 무엇을 써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얼마 전 보았던 프로그램을 떠올렸다. 당시는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익숙한 존재가 아니었기에 만물박사이신 아버지께 질문을 드리면서 답을 얻었다. 김운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IOC라는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나는 내 꿈을 그리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IOC위원이 되겠다는 꿈을 품게 된 것이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올림픽이라면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빼놓지 않고 볼 정도로 애정을 갖고 있었다. 또한 중학교 가면서부터 배우기 시작한 영어는 새로운 문화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열쇠였기에 어학 공부 또한 즐겨 하였다. 이러한 나의 모든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이 바로 IOC위원이라 생각하였던 것이다.

나의 발표 시간, 나는 당당하게 나의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조목 조목 설명하였고 그 후로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나를 'IOC'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에너지는 그 해 여름방학 대한올림픽위원회 IOC실로 인터뷰를 가게 되면서 구체화되었다. '내 꿈의 멘토링 리포트'라는 여름방학 과제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 김운용위원은 해외출장 중이어서 담당하는 직원분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30분으로 예정되었던 인터뷰는 2시간으로 이어졌고, 나의 열정에 용기를 북돋아

주셨고, 김운용위원의 자서전과 함께 많은 정보를 알려주셨다. 인터뷰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는 순간 나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가슴 속 밑에서부터 불덩이 같은 것이 끌어 오름을 느꼈다. 그 순간 '이 꿈을 못 이루고 죽으면 억울해서 죽어서도 이 영혼이 이 세상을 못 떠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꿈을 만나고 확신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나의 중3 겨울방학은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안을 만드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역시나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다가 많은 책을 읽게 되었다. 그 중 한 책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 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부터 미시적인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다. 나의 첫 인생설계는 '인생계획 5단계'라는 이름과 함께, IOC위원이 되기 위해서 내 10대 20대 30-40대 그리고 그 후의 삶을 대략적으로 그리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해야 하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을 수첩에 하나씩 적기 시작하였다. '죽기 전에 꼭 할 일들'이라는 이름의 리스트였다.

나의 삶은 20대가 되면서 많은 변화와 경험을 하게 되었다. 대학에 가서 스포츠마케팅동아리, 전국대학생아카데미, 수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하였고 여행과 사람들의 만남 그리고 올림픽에 대한 조사 등으로 채워졌다. 대학교에서는 정치외교학과 국제기구를 공부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김운용위원께서도 정치외교를 공부하면서 국제를 바라보는 해안을 터득하셨다고 하셨고 올림픽만 아는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았기에 나도 외교 및 국제관계를 공부하게 되었다. 학과 공부와 함께 끊임 없이 올림픽 관련 자료를 모으면서 2007년 한국올림픽아카데미에 참가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올림픽만을 위한 강의였었고, 누가 시키지 않고도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게 되었다. 이러한 열정은 이듬해 국제올림픽아카데미에 참가하는 기회로 이어졌다. 그 곳에서 만난 전 세계의 올림픽을 사랑하는 친구들과 보름간 잊을 수 없는 꿈과 같은 토론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 체육 단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나는 한국에는 올림픽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IOC 홈페이지에서 찾은 전 세계 올림픽 연구소를 찾다가 영국의 Loughborough 대학교를 찾게 되었고, 여름에 영국으로 날아가서 담당 교수님을 만나 상담과 인터뷰를 하였다. 많은 자료 조사와 방향을 찾으며 국제적인 시스템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국제올림픽아카데미에서 올림피즘과 장애인올림픽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장애인올림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고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인턴십

을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에서부터 서류전형, 인터뷰, 독일 현지와의 전화인터뷰까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 동안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은 너무나도 새롭고 또 다른 도전과제가 되었다. 불확실하고 그 누구도 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길이기에 자료를 찾고 준비하는 것은 오로지 내 몫이었다. 미디어와 기술의 도움으로 많은 자료를 활용하여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를 할 수 있었다. 2달여 간의 기간 동안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의 꿈과 목적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되뇌었고, 그러한 과정이 국제기구에서 일 하는 기회로 이어진 것 같다. 1년의 인턴십 기간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다. 언어, 날씨, 문화 모든 것이 한국과 다른 독일에서 가족 없이 일을 하고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다. 특히나 기압이나 날씨가 수시로 바뀌는 독일의 4월과 겨울은 너무 감당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3년이 되어가는 지금은 돌이켜보면, 이러한 환경 덕분에 해가 뜨고 지며,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날씨가 안 좋아도 아무렇지 않게 일을 하고 생활을 하게 되는 내공을 쌓게 되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도 다른 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국제기구에서는 내 중심과 가치관을 가지고 유연하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다. 처음에는 이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배우는 것에 급급했는데, 무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내 생각과 철학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토론문화인 유럽인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왜'라는 질문과 이에 대한 자신들만의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데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벤담의 공리주의 사상이 유럽인들의 사상을 지배하는 주요 밑바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들의 사고방식이 이해되기 시작하였고, 우리의 주요 사상의 원천은 무엇인지를 공부하였다. 근무시간 중간이나 점심 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문화의 차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지 등을 이야기 하면서 서로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할 수 있었다.

국제기구에서 2년간 일을 하면서 나는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하였다. 내가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올림픽학(Olympic Studies)'공부를 하는 것이었다. 대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반드시 해보겠노라고 생각하던 공부를 인턴십과 계약을 마쳐갈 때 즈음 다시 하게 되었고 운이 좋게도 독일쾰른체육대학교(Deutsche

Sporthochschule köln)에서 새로 개설된 '올림픽학' 석사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아직 어색하기만 한 올림픽공부이지만 국제기구의 경험을 통해 내가 더 배우고 이를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시작하게 되었다. 국제기구의 경험을 통해 또 하나의 도전이자 꿈이 생겼고 이를 이루기 위해 비전을 세우고 꿈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나 또한 그러한 자신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해 왔고 하고 있음에도 매번 쉽지 않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국제기구에 지원하고 일 하고 그 후의 직업과 삶을 그리며 나아가기까지 많은 실패와 성공을 거치면서 터득한 것은 '무엇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지'를 끊임없이 찾으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그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과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니며, 미래의 10년, 20년을 달려도 문제가 없는 꿈을 이끄는 엔진이 될 것이다.

지금 누군가가 국제기구 진출을 꿈꾸는 이가 있다면 조금씩 하지 말고, 중요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일부부터 시작해서 접근하라고 말 하고 싶다. 자신과의 대화를 먼저 깊이 있게 하고 충분한 자신만의 이유를 찾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달콤하고 향기로운 실력이라는 열매와 함께 국제기구 진출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